왜 종교를 믿는가

종교를 넘어선 종교 최준식 지음 | 사계절 | 1만2천원

"당신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매주 절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이나 신행활동 경력 10~20년을 자랑하는 '독실한' 신자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 신행활동, 수행법 등은 줄줄이 꿰고 있지만, 정작 '종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쳐 온 종교. 과연 그 실체와 의미는 무엇일까? 30여 년간 종교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에 천착해 온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과)가 최근 펴낸 <종교를 넘어선 종교>는 '종교의 본래 가치를 이해하자'는 뜻으로 씌어진 종교 입문서다.

지은이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태도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별 의문이 없거나, 또는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며 종교에 대한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서설 '종교학의 주요 문제들'에서는 종교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 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12가지로 가려낸 다음, 이 중 어느 한 가지 특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종교를 한데 묶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조자연적 ·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 성 · 속의 구분, 숭배 대상과 관련된 의례나 행위, 계율이나 도덕규범 등의 특질을 대체로 갖춘 것을 종교라 정의하고 있다.

본설 '인간과 종교'에서는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와 종교를 통해 다다르고자 했던 경지 그리고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지은이는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고통을 벗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린다.

불교는 해탈에 이름으로써, 기독교는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음으로써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교를 통해 인간이 다다르고자 하는 경지를 제시한다. 불교의 공(空)과 힌두교의 브라만,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같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마다 명상과 수행, 헌신, 숭배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종교의 역사와 본질을 살펴볼 때 인류는 그동안 '자아중심성의 탈피'라는 종교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결론짓는다. 9 · 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같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수행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고,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수행을 통해 영원이나 절대 실재에 대해 연구하고 체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러한 발전 방향에 동참할지 아니면 교리만을 가르치는 기성 종교에 머물 것인지를 묻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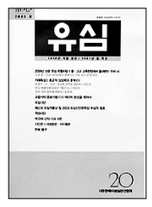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0여년 종교 연구한 '한국학' 교수
종교의 역사와 본질 파헤쳐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이르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학생들. 추위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새로나온 책

■ **<禪으로 가는 길>**(창간호, 불교문화연구소 펴냄, 1만원)=불교문화연구소(소장 차대완)가 격월간 불교문화 잡지 <禪으로 가는 길> 창간호를 펴냈다. '고승을 추억하며' '불교와 음악' '명상사찰 소개' 등 선수행과 명상 등의 불교문화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지난해 7월 창립한 불교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선문화 유적지 답사, 불교조각작품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02)465-8393



■ **<유심 2005 봄호>**(만해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우리나라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현대시조를 얼마나 배우고 있을까? 신춘 특별좌담에서는 '중 · 고교 교육현장에서 홀대받는 우리 시'를 주제로 국정 국어교과서의 현대시조 축소 수록 문제를 다루고 있다. 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인 문태준(시) 이지엽(시조) 유성호(평론)씨의 작품도 실려 있다.

■ **<한문의 생활력>**(가토 도루 지음, 유준칠 옮김, 수희재, 1만2천원)=가토 도루(일본 히로시마대 종합과학부) 교수는 한문을 사고를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해 볼 것을 권한다. 지은이가 제시하는 '한문력'이란 한문을 읽어가며 그 속에 담긴 옛 선인들의 사상을 습득함으로써 얻는 힘을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길을 걷는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5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부
6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7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이가서
8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사
9	보살예수	길희성	현암사
10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도서 안내 :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불교

보성 스님 법어집, 참된 나를 찾아서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 스님 지음
효림 | 6천원

조계종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법어를 정리한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는 불자들이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다. 흔히 '큰스님 법어집'이라고 하면 한자 투성이에 알 듯 말 듯한 선문답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에서 보성 스님은 초심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담은 '불자의 바른 삶을 위한 법문'에서는 부처님이란 누구이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참된 나'를 찾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도하는 불자를 위한 법문'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기도와 참회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공부하는 불자를 위한 법문'에는 불자들을 위한 자세한 공부지침이 담겨 있다. '경전을 독송할 때는 그 뜻 새기며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읽어라' '법문을 들을 때는 단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마음에 새기겠다는 자세로 임하라' '법문을 들을 후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해 법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등 세세한 마음공부법을 일러준다.

서양인 사로잡은 선 이야기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
폴 렙스 · 뇨겐 센자키 지음
김문호 옮김
화남 | 9천원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법문집이나 선어록 등도 함께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미 30여 년 전,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를 묶은 책이 출간되자 미국과 유럽에서 300만부 이상 팔려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바로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다.

미국에서 태어나 인도, 노르웨이, 일본 등을 떠올며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폴 렙스와 일본 출신의 수행자이자 미국 불교 지도자 로버트 아이켄로쉬, 에이도 로쉬, 시인 개리 스나이더 등을 제자로 길러낸 뇨겐 센자키가 펴낸 이 책에는 불자들이라면 한 번 쯤 들어봤을 선사들의 일화나 어록이 정리돼 있다. 13세기 일본 선승 무주 선사를 비롯해 게이추 선사, 난닌 선사, 센노리큐 선사 등의 일화를 볼 수 있다.

책 말미에는 중국 곽암 선사의 글을 일본 목판화가 도미키치로 도쿠리키씨의 판화와 함께 엮어 소개한 '소를 찾아서(尋牛)'를 담았다.

여수령 기자

문답으로 배우는 위빠사나 수행법

문: 좌선 중에 시계를 앞에 놓고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답: 시계를 쳐다보지 마라. 30분간 앉이 사라지기를 서원을 세우고 난 뒤 30분이 되고 안 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서원을 세우면 그렇게 된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행을 하도록 해라.

위빠사나 수행법에 있어 스승과의 면담은 수행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나침반이다.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의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도 된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마하시 선원에서 외국인을 지도하는 아신 자띨라 사야도가 한국인 수행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한국위빠사나선원 묘원 원장이 글로 옮긴 것이다.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의 결과물과 의문점을 스승 앞에 드러내놓고, 스승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명상이 지겨워진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등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의문들에 대한 아신 자띨라 사야도의 명쾌한 해답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꼭 '모범답안'은 아니다. 수행의 전개 상황은 생략된 채 수행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수행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고, 통역에 따른 오역(誤譯)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묘원 원장은 "수행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처방만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며 "하지만 수행의 세계를 많은 이들과 나눈다는 뜻에서 문답 내용을 책으로 엮게 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각 문답마다 '주해'를 붙여 문답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후 상황과 대답에 담긴 의미를 짚어주고 있다.

부록으로 마하시 선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일어남' '꺼짐' 등의 명칭을 왜 붙여야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스승과 면담을 할 때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준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아신 자띨라 사야도 지음
묘원 스님 편주
행복한숲
1만1천원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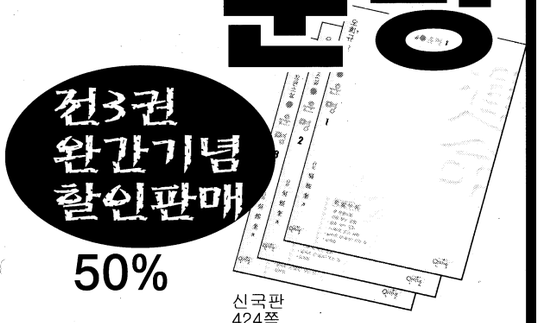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